

국내 기록학 연구방법 동향분석 (1)*

설문과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Methodological Research Trend Analysis of Records and Archives in
Korea(1): Focused on Surveys and Experiments

이소연(Lee, So-Yeon)**

1. 서론
2. 기록학 연구패러다임
 - 1) 연구패러다임
 - 2) 기록학과 실증연구패러다임
3. 연구방법
 - 1) 범위와 한계
 - 2) 연구절차
 - 3) 기본정보
4. 실증데이터 수집방법에 따른 분석
 - 1) 설문조사
 - 2) 실험
5. 결론

*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15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oyeon@duksung.ac.kr).

■ 투고일 : 2017년 12월 30일 ■ 최초심사일 : 2017년 1월 5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월 17일

〈초록〉

이 연구는 기록학 분야의 연구패러다임과 방법론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연구방법론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연구의 기반이 되는 신념체계에 따라 Guba와 Lincoln이 정의한 4가지 연구패러다임을 검토하고, 기록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패러다임을 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록학 분야의 양대 학술지로 지칭되는 기록학연구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481편의 동료평가된 국내 연구 논문을 검토하여 80편의 실증연구를 선별하였다. 그 중 후기실증주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 면담연구와 혼합방법 연구 등은 후속연구과제로 남기고, 여기서는 우선 설문조사와 실험연구 32편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주제어 : 기록학, 동향분석, 설문조사, 실증연구, 실험, 연구패러다임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at encouraging discussion on research paradigms as well as research methodologies of records and archives studies. Reviewing research paradigms, defined by Guba and Lincoln based on basic beliefs, leads to the suggestion that the discipline needs to reach to a certain degree of consensus on ontological,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premises in order to inform and guide future research. To make the argument, the present study reviews all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wo major journal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an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from 2007 to 2016. It then identifies 80 research papers from positivistic research and reviews 32 papers, which collected data through surveys and experiments.

Keywords : records and archives studies, research trend analysis, surveys, positivistic research, experiments, research paradigms

1. 서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이 1999년에 제정되면서 새로운 기록 관리의 전통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시작은 이듬해인 2000년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해에 기록학회 양대 학회인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이 두 학회의 학술지인 '기록학연구'와 '한국기록관리학회지'가 기록학의 연구 성과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주요 경로가 되어 왔다. 기록학은 기록관리 현장의 기반 학문으로서 응용학문이자 실천학문, 경험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기록관리 현장에서 일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과 개설로 연장되고, 교육내용을 생성하여 확산할 주요 수단으로서의 학회 결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현장을 갖는 응용학문이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발전시키려면, 학술연구가 현장의 지향점을 노정하고, 현장이 학술연구에서 제시한 방향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정련하는 선순환이 필수적이다. 경험을 축적할 현장이 부재했던 초기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으므로 해외 표준사례의 소개에 의존한 논문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공분야에 전문요원이 배치되고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경험의 공유와 분석에 기반 한 연구와 실무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다. 학술논의를 진전시키고, 현장의 역량을 강화시킬 전문지식의 공백을 해외사례에 대한 동어반복이 채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관념적 원론을 정리한 학술성과물이 현장에서 검증되지 않고, 현장의 렌즈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원론이 무한 반복되면서 이론도 현장도 제 자리 상태에 머물러 있다. 기록공동체에 전문지식 축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자성이 거듭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록공동체가 갈구하는 전문성의 기반 축적은 요원할 것이다.

기록학 연구에서 실증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

다. 우선 이소연(2011)은 국내 전자기록 연구 동향을 보고하면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1) 현장을 조사하여 문제를 드러내고 해법을 찾는 실증연구가 거의 없다, (2)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탐구하는데 적절한 연구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3) 그리고, 앞의 두 가지 문제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학술연구를 구성하는 기본요건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57편의 전자기록 연구 중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채택한 연구방법을 언급한 것은 30편뿐이었다(25-26). 기록분류를 다룬 연구동향을 분석한 설문원(2012)은 출처와 분류체계 등 기본개념에 대한 실증적이며 이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록분류 연구들은 국제기준에 맞는 체계를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공급자 관점에서의 연구나 실무 목적의 사례연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228). 기록서비스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김건 등(2013)도 대부분의 연구가 사례의 소개나 도입을 제안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나 실무자가 수행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근거중심실무(Evidence-based practice)¹⁾를 촉진하여 현장실무자의 연구와 출판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학술지에 우수 현장 논문을 선별하여 실을 것을 제안하였다(216). Archivaria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국외 기록학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박희진(2014)도 국내 동향분석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실증연구 부족 문제를 지적(102)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1) 복합학문인 기록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방법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기록학이 경험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가 부족하며,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당위론적 주장의 동어반복이라는

1) Evidence-based practice는 근거중심/증거기반 실무/실천으로 번역된다. DBPia를 검색해 보면, 교육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현장과 긴밀한 연계를 갖는 다양한 경험학문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EBLIP)’을 다룬 표순희의 두 연구(2009; 2010)가 나와 있다.

진단이 사실인지를 그간 발표된 학술논문을 전수 검토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그리고 이미 발표된 실증연구들이 각각 채택한 연구방법론의 관행과 요건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기록학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방법론의 중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기록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법론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유도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우선 2장에서는 Guba와 Lincoln(1994; 2011)²⁾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문제를 검토하고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다양한 연구 패러다임의 특성을 확인하고, 기록학 분야에서 연구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장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기록학 양대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중 실증연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연구가 취한 방법론의 세부사항을 다루었다. 지난 10년간의 논문 481편을 검토한 결과, 80편의 실증연구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80편 모두를 한 논문에서 다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여기서는 실증주의 방법론인 설문/평가 연구와 실험연구의 동향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후기실증주의 방법론인 면담/표적집단면담(FGI: Focused Group Interview) 연구와 혼합방법 연구, 그리고 정보공개자료 분석 연구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후속 논문³⁾에서 다를 예정이다. 실증주의 연구와 후기 실증주의 연구 논문을 모두 분석한 결과로부터 도출한 시사점도 후속논문에서 다를 것이다.

2) Guba와 Lincoln의 논문이 실린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는 질적 연구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저작 중의 하나로 1994년의 초판을 이어, 2011년의 4판까지 나와 있다. 초판(Guba & Lincoln)과 4판(Lincoln, Lynham, & Guba) 모두 연구패러다임에 대한 논문을 싣고 있다. 4판에 실린 글이 초판의 논의를 수정하기보다는 초판의 논의를 생략한 채 확장한 내용을 담고 있어, 두 편을 다 열독할 것을 권한다. 전권이 1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4판의 번역본(손승현 2014)이 나와 있다.

3) 기록학연구 52호(2017년 4월)에 투고할 예정이다.

2. 기록학 연구패러다임

1) 연구패러다임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를 구분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식은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질적 연구(qualitative)를 구분하는 것이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성격이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양적 데이터인가, 아니면 맥락에 따라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질적인 데이터인가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이라는 대역어를 선택한다. 그러나 수집한 데이터의 성격보다는 분석의 초점, 즉 수치를 분석하는지 성질을 파악하고자 분석하는지가 더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량 연구’와 ‘정성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연구데이터의 수집이나 분석방법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믿는 학자들도 있다. Guba와 Lincoln(1994), 그리고 Lincoln, Lynham과 Guba(2011)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구방법론의 선택에는 연구자의 세계관과 철학이 반영된다고 믿는다. 이들은 연구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실증주의(positivism)와 후기실증주의(post-positivism), 비판이론(critical theory), 그리고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4가지 패러다임을 구분한다. 이들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적용한 양적 연구, 즉 실증주의 철학을 ‘기존 관념(received view)’이라고 부르며, 후기 실증주의와 비판이론, 구성주의는 실증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각각의 패러다임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기본 신념(형이상학)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세 가지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존재론적 질문: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진실 또는 사실(reality)의 본질과 형식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연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2. 인식론적 질문: 알고자 하는 사람(연구자)과 앎의 대상(연구대상) 사이의 관계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3. 방법론적 질문: 연구자가 알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음의 <표 1>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네 가지 패러다임 각각의 답을 도식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연구패러다임별 기본 신념체계

	실증주의	후기실증주의	비판이론	구성주의
존재론	순진한 사실주의 - '진실한' 사실(real reality)이 존재하며 이해할 수 있다	비판적 사실주의 - '진실한' 사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불완전하고 추론적인 방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주의 -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민속, 그리고 젠더 가치에 의해 형성된 가상의 사실	상대주의 - 지역적으로, 상황적으로 형성된 진실들
인식론	이원론자/객관주의자; 결과는 진실하다(true)	수정된 이원주의자/객관주의자; 비판적전통/공동체; 결과는 진실할 수도 있다	상호작용적/주관주의자; 가치가 개입하는 결과	상호작용적/주관주의자; 만들어낸(created) 결과
방법론	실험적/조작적; 가설의 검증; 주로 양적 방법	수정된 실험적/조작적; 비판적 다원주의; 가설의 오류확인; 질적 방법 포함 가능	대화체(dialogic)/변증법(dialectical)	해석적(hermeneutical)/변증법

*출처: Guba & Lincoln (1994) p.109

우선 실증주의 패러다임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실재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시간이나 맥락과 무관하게 존재하므로 다른 시간과 상황에서도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여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거나 의심되지만 해도, 이를 제거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게 된다. 방

방법론적으로는 연구문제나 가설을 명기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경험적 검증(empirical test)을 수행한다.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을 통제하여 부적절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막는다.

후기 실증주의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실증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현한 패러다임이다. 여기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불완전하게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정된다. 인간의 불완전한 지적 능력이나 본질적으로 다루기 힘든 현상의 속성 때문이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은 기각되었지만, 객관성은 '규범적 이상'으로 남아 있다. 기존 지식, 즉 선행 연구와 부합하는 결론인가 하는 질문과 같은 객관성의 보루가 강조된다. 방법론적으로는 '비판적 다원주의'에 초점이 있다. 가설을 검증하기 보다는 삼각검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가설의 오류를 검증한다. 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더 많은 상황적 맥락정보를 수집한다. 대체로 질적 방법을 활용한다.

비판이론에서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민속, 그리고 젠더 요인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 (부적절하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일련의 구조로 고착된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은 연구자의 가치가 연구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구결과는 가치가 개입된 것이다. 따라서 비판이론에서는 존재론과 인식론을 구분하지 않게 된다. 탐구의 상호작용적 성격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의 대화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대화는 본질적으로 변증법이며 무지와 오해로부터 깨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구성주의의 존재론은 상대주의로 요약된다. 사실은 다원적이고 정신적인 구성물(constructions)로서 사회적, 경험적이고 동시에 지역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의 내용과 형식은 개인이나 집단이 갖는 구성물에 의존한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은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구결과'는 말 그대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만들어진다.' 개인의 구성물은 연구자와 응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유도되고 정련될 수 있다.

2) 기록학과 실증연구패러다임

기록학은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컴퓨터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유입됨으로써 형성되었다. 이들을 0.5세대 기록학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들은 기록의 정신에 동의하여 기록공동체에 합류하였다는 점은 같지만, 기록학을 탐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기록학의 역동성이 여기에서 왔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마친 연구자들, 즉 기록학 1세대라 할 일군의 신진연구자들이 이미 양성된 이 시점에서는 기록학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네 가지 패러다임 중 기록학의 연구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용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과학문에서와 같이 기록학에 네 가지 패러다임 모두가 필요할 수 있다. 어떤 쪽이든 적어도 각각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연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모든 학문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은 연구에서 창출되며,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도록 장려하려면 바람직한 연구로 기대되는 것은 어떤 연구인지에 대해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 '연구사'로 나가 있는 실무자/연구자들이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듣는 일이 드물지 않다. 그러나 실무자/연구자들은 연구에 집중할 시간이 없는 것도 원인이지만,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것도 이유라고 토로한다. 현장에서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가까스로 통과는 했지만 공들여 힘들게 만들어낸 논문에 쏟아진 혹평에 당황했다는 경우도 있다. 물론 현장 실무자들이 학술연구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만족시키는 논문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이유일 수도 있지만, 연구에 대한 상이한 세계관을 가진 심사자와 필자가

만났을 때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여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지난 해 전국기록인대회의 주제는 ‘기록관리, 기본을 다시 생각한다’였다. 그리고 첫 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전문성을 축적할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쏟아져 나왔다. 전문성은 전문지식에서 나올 테고, 전문지식은 학계와 현장의 교류로부터만 축적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학교에서 배운 게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더라는 실무자와 현장 밖에서 연구하기가 어렵다는 연구자가 공존하는 교착 상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연구방법론에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실증연구는 ‘사실의 증거가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정의되었다. Guba와 Lincoln의 구분을 염두에 두고 양대 학술지 논문을 검토하여, 실증주의 연구와 후기 실증주의 연구를 식별하였다. 여기서는 설문조사 연구와 실험연구 등 실증연구를 다룰 것이며, 면담이나 혼합연구 등 후기 실증주의에 기반 한 연구들은 후속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1) 범위와 한계

동향분석 연구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부분은 연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이다(이소연 2011, 10). 이 연구에서 기록학 실증연구는 ‘기록학의 연구문제에 관련된 사실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로 정의되었다. 존재론과 인식론 등 연구자의 세계관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설문과 실험 연구를 실증주의 연구로, 면담이나 혼합방법을 채택한 연구를 후기 실증주의 연구로 간주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실증연구논문을 선정할 때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양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치지 않은 발표문은 제외하였다. 한국기록학회 제 9회 심포지움의 발표문 2편이나 몽골국제기록학 학술회의 발표문 3편 등, '논문'이 아니라 '발표문'으로 표기된 글이 이 기준에 따라 제외되었다.
3. Elizabeth Yakel의 논문(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권 3호)은 실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동료평가도 거친 학술논문으로 판단되지만 복미 기록관을 조사한 연구였으므로 국내 연구동향으로 볼 수 없어 제외하였다.
4. 법령이나 제도 연구, 사례 연구, 민속지적 기술지 연구, 구술사 연구, 모형개발 연구 등을 제외하였다.
5. 실증적 역사연구도 제외하였다. 역사학에서의 '실증'이 사회과학에서의 '실증'이 의미하는 바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회과학 배경을 가진 필자가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증적 탐색을 통해 유럽연합 통합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탐색'한 노명환(기록학연구 32호)이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기록물의 분류 및 평가체제의 개편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이 외국과는 '매우 다른 분류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였음을 실증'하고자 한 이승일(한국기록관리학회지 8권 2호)의 연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서론이나 머리말, 또는 별도의 장이나 절을 할애하여 연구에서 채택한 실증연구방법의 내용을 명기한 연구만을 선별하였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실증적 데이터 수집과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방법론을 검토할 수 없다면 제외하였다.
7. 실증연구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연구들도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사례연구나 모형연구를 주로 하는 연구에서 1~2쪽 정도의 분량으로 연구방법과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여기 해당된다.
8. 설문조사 등 양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라고 할지라도 단일 기관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례연구로 보고 제외하였다.
9. 평가연구의 경우, 연구자 자신이 평가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10. 시스템이나 도구를 개발하고 테스트한 연구는 이 연구에서 채택한 실험연구와 다른 성격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11. 정보공개청구를 데이터 수집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인용하기만 한 경우는 제외하고, 자료를 재조합, 분석한 경우는 포함시켰다.

이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한계는 연구자의 배경과 관점에서 오는 한계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자는 각각 3회 이상의 설문연구와 면담연구, 그리고 혼합방법 연구를 수행한 이력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Lincoln과 Guba의 패러다임 구분에 따르면 후기실증주의 연구를 지향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 연구 문제의 속성 상 설문연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양적 연구를 선택해 왔다. 무엇보다 사회과학적 연구 배경을 갖고 있어, 양대 학술지에 게재된 역사연구, 구술사연구, 시스템 개발 연구 등 다른 분야의 연구 전통에 익숙하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학술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즉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와 대상,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가 도출한 결론 사이의 내적 정합성이 라고 믿고 있다. 또 기록학과 같이 현장을 갖고 있는 학문에서는 외적 타당성, 또는 일반화가능성(external validity/generalizability)보다 연구가 수행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여(contribution)가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장이나 학계의 요구에 시의적절하게 부응하거나, 잠재적 요구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연구가 아니라면 방법론적 엄정성과 상관없이 연구의 의의가 반감된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관점으로 인해, 실증연구를 식별하고 범주화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를 수행했을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했을 수도 있다.

이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주요 한계는 양 학술지에 실린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 될 것이다. 기록관리를 다룬 연구논문들이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에 발표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아 양 학술지를 검토하는 것만으

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정민과 김유승(2013)은 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정보공개'를 키워드로 DBpia를 검색하여 245편을 찾아내고, 33종의 학술지에 실린 97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중 16편만이 양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었다. 기록서비스 연구동향을 분석한 김진 등(2013)의 연구 대상 논문 73편 중에서도 59편만이 양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었다.

2) 연구절차

이 연구가 채택한 연구방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지난 10년간의 양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모두 검토하여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 실증연구를 확인하였다.
2. 제목이나 초록과 목차만으로 연구주제를 확인할 수 있었던 다른 동향분석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는 481편의 논문을 본문까지 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에 걸친 1차 검토과정을 통해 실증연구 요소를 가진 총 119편의 논문을 확인했다.
3. 2차 검토 과정에서 선정기준을 정련하여 총 80편의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최종 확인하였다.
4. 연구대상으로 정한 80편의 논문을 데이터 수집 방법에 따라 5개 범주(설문/평가, 실험, 면담/표적집단면담, 혼합방법, 정보공개자료 분석 연구)로 구분하였다. 후기실증주의 연구방법인 면담과 혼합방법 등은 후속논문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는 실증주의에 기반 한 데이터수집 방법인 설문/평가와 실험 방법을 채택한 논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4장에서 정리할 것이다.

3) 기본 정보

다음의 <표 2>는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년간 양대 학술지에 게재된 총논문의 수와 실증연구 논문의 수를 연도별로 보이고 있다. 양 학술지에 총 48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기록학연구에는 총 241편,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는 총 24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⁴⁾ 이 중 설문조사, 실험 등의 실증연구와 면담, 혼합연구 등의 후기실증연구는 중 80편(16.63%)이었으며, 한국기록관리학회지가 기록학연구의 2배에 달하는 실증/후기실증연구를 게재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실증연구의 뚜렷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07년에는 2편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총 논문 수 대비 21%에 달하는 실증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표 2> 양대 학술지 게재 실증/후기실증연구 논문

연도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계 실증/총논문
	총논문수/호수	실증/후기실증연구	총논문수/호수	실증/후기실증연구	
2007	15/2	1	16/2	1	2/31
2008	15/2	1	20/2	5	6/35
2009	27/4	0	20/2	2	2/47
2010	24/4	1	18/2	2	3/42
2011	23/4	0	24/2	3	3/47
2012	21/4	3	28/3	11	14/49
2013	26/4	7	27/3	8	15/53
2014	30/4	4	25/4	3	7/55
2015	26/4	3	32/4	11	14/58
2016	34/4	6	30/4	8	14/64
계	241/36	26	240/28	54	80/481

다음의 <표 3>은 80편의 실증/후기실증연구 논문을 데이터 수집 방법에 따

4) DBpia를 검색한 결과(2016년 1월 5일 현재)에 따르면 창간 이후 지금까지 게재된 논문의 수는 기록학연구가 494편, 그리고 한국기록학회지가 366편으로 게재 편수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수치는 기록학연구에 실린 서평이나 시론, 자료, 회보 등을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라 다시 5개 범주로 분류(설문조사와 평가연구, 실험 연구, 면담과 표적집단 면담 연구, 혼합방법 연구, 정보공개자료를 분석한 연구)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연도	설문/설문평가	실험	면담/FGI	혼합방법	정보공개자료	계
2007	0/1	0	1/0	0	0	2
2008	2/0	1	1/0	1	1	6
2009	2/0	0	0/0	0	0	2
2010	0/0	0	3/0	0	0	3
2011	1/0	0	2/0	0	0	3
2012	4/2	1	2/0	4	1	14
2013	4/0	1	3/2	5	0	15
2014	0/0	0	3/1	1	2	7
2015	1/1	2	2/0	6	2	14
2016	7/1	1	5/0	0	0	14
계	21/5	6	22/3	17	6	80

설문연구에는 설문지를 활용한 평가연구가 포함되었으며, 면담연구에는 표적집단면담(FGI: Focused Group Interview)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총 80편 중 32편이 설문조사(26)나 실험(6) 등 실증연구였으며, 48편이 면담(25)이나 혼합방법(17) 등 후기실증연구였다. 정보공개자료를 분석한 연구 6편은 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얻은 자료의 내용을 범주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후기실증연구로 간주하였다.

4. 실증데이터 수집 방법에 따른 분석

1) 설문조사

보통 설문조사로 번역하는 ‘survey’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함으로써 모집단의 의견이나 태도, 경향성에 대한 양적이거나 수치화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Creswell 2009, 145). 표본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하여 모집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표집(sampling)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고 이를 논문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의 설문지를 사용하든, 새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든 어떤 내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는지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어떻게 묻는가에 따라 응답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응답자의 입장에서 설문내용이 이해가 되는지, 질문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조사(pilot test)를 하거나, 전문가 검토(expert review)를 받아 설문도구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설문조사 연구의 한계로 흔히 지적되는 점은 변인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맥락을 건어낼 수밖에 없는 점,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대상을 연구하기 어려운 점 등이다. 표준화된 설문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설문조사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 어두운 밤 비어 있는 넓은 주차장에서 빛이 비추는 가로등 아래에서만 잃어버린 자동차 키를 찾고 있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그 때문이다.

양대 학술지 논문 중 설문조사를 채택한 연구는 총 26편이 있었다.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1)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의 활용에 관련된, 직무특성이나 직무분석, 직무만족도, 그리고 계속교육 등을 다룬 연구 7편, (2) 공기업이나 국립박물관 등 특정 기관유형이나 대학 학과기록, 소셜미디어 기록 등 특정 기록유형에 주목한 연구 5편, (3) 기록관리 업무의 특정 측면, 즉 메타데이터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에 초점을 둔 연구 6편, (4) 기록이용자를 탐구한 연구 3편, 그리고 (5) 설문조사 방법을 채택한 평가 연구⁵⁾들이 그것이다.

다음의 <표 4>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인력활용에 관련된 설문조사 연구를 보인다. 설문조사 방법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를 분석하거나

5) 체크리스트와 면담방법을 채택한 시스템 평가 연구 6편은 기록학에서의 후기실증주의 연구동향을 분석할 후속논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직무만족도를 연구문제로 선택한 연구들이 주로 선택하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하영과 강순애(2013)는 서울시 자치구청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직무특성과 환경을 조사하였다. 유현경과 김수정(2016)은 직무만족도를, 박소리 외(2016)는 직무만족도와 직무몰입도를 조사하였다. 이성태(2009)와 이을지, 이호신(2016)은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한편 이은영(2012)은 전문요원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장혜리와 최재황(2008)은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의 역량강화에 주목하였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은 설문지 구성이나 분석절차 등 정성적 연구설계와 보고 방식의 전범을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직무분석이나 만족도와 관련하여서는 조직사회학이나 조직심리학, 경영학 등에서 이미 안정화된 연구설계와 설문도구 가이드라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 설문조사-인력활용

	저자(연도)	논문명	학술지(권/호)
1	장혜리, 최재황(2008)	레코드매니저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록관리학회지(8/1)
2	이성태(2009)	AHP방법에 의한 기록연구사의 직무분석	기록관리학회지(9/2)
3	이은영(2012)	기록관리전문직의 핵심역량에 관한 인식 연구	기록관리학회지(12/1)
4	정하영, 강순애(2013)	서울특별시 자치구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특성 및 직무환경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학회지(13/2)
5	유현경, 김수정(201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47)
6	이을지, 이호신(2016)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학회지(16/3)
7	박소리 외(2016)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록관리학회지(16/4)

설문조사 방법을 채택한 연구가 주로 다루는 두 번째 주제는 기록관리 현황이었다. 우선 기록관 유형별 현황조사로는 11개 지방국립박물관의 기

기록관리 담당자를 조사한 장현중(2008), 그리고 9개 공기업의 필수조직 구성원 8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박용기, 정연경(2016)이 있다. 대학 기부기록물(김지연, 김진, 김용 2013), 소셜미디어 기록물(이귀영, 김지현 2015), 대학 학과기록물(조용훈, 서은경) 등 특정 유형 기록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연구들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장현중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 연구설계나 설문지의 구성, 조사대상자의 선정 등 연구방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고, 분석 내용을 보고하는 방식도 사회과학 연구관행을 상대적으로 성실히 따르고 있다. 다만 설문조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아직 기록관리 문화와 실무관행이 자리잡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경우가 드물지 않아 연구방법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특정 유형의 기관에서 기록관리가 부재함을 지적하거나, 특정 유형의 기록의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해당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이나 혼합 연구 방법을 적용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설문조사-기록/기관유형

	저자(연도)	논문명	학술지(권/호)
1	장현중(2008)	국립박물관의 기록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기록관리학회지 (8/2)
2	김지연, 김진, 김용(2013)	대학발전 기부기록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학회지 (13/2)
3	이귀영, 김지현(2015)	중앙행정기관의 소셜미디어 아카이브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학회지 (15/3)
4	박용기, 정연경(2016)	공기업 기록경영 도입을 위한 구성 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학회지 (16/2)
5	조용훈, 서은경(2016)	대학 학과기록의 디지털 리포지터리 플랫폼 구축	기록관리학회지 (16/3)

세 번째 범주는 기록관리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다.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요원을 조사한 전슬

비와 강순애(2016), 원문정보공개시스템에서 구현되는 전자기록 구성요소의 진본성 등 4대 속성 보장 여부를 조사한 허준석과 홍덕용(2016), 전자 의무기록 메타데이터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은미, 김명, 임진희(2013), 시청각기록 평가요소의 중요도를 조사한 홍덕용(2012),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박민수 서은경(2012), 학교기록물의 보존기간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 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한 최윤정과 남태우(2012)의 연구 등이 여기 포함된다. 모두 방법론의 설명이나 분석 등에서 사회과학 설문연구의 기본을 준수한 연구였다. 여기서도 평가요소나, 보존기간,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일반원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 설문조사보다는 면담이나 혼합 연구를 통해 더 풍부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설문조사에서는 연구자가 미리 짐작할 수 있었던 내용만을 물을 수 있으며, 설문 도구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해도 응답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연구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 설문조사-기록관리 업무

	저자 (연도)	논문명	학술지(권/호)
1	홍덕용(2012)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 중요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32)
2	박민수, 서은경 (2012)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분석	기록관리학회지 (12/1)
3	최윤정, 남태우 (2012)	학교기록물의 보존기간 적합성 여부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학회지 (12/2)
4	이은미, 김명, 임진희(2013)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 관련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요소들에 대한 의무기록 관리자의 중요도 평가 연구	기록관리학회지 (13/3)
5	전술비, 강순애 (2016)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기록관리학회지 (16/1)
6	허준석, 홍덕용 (2016)	원문정보공개서비스를 위한 전자기록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50)

앞의 세 범주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 기록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위한 것이라면, 네 번째 범주에는 기록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연구를 포함시켰다. 대통령기록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기존 콘텐츠를 살펴봄과 동시에 함께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김솔(2013),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정보를 활용한 콘텐츠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역사학 교수 14명과 대학생 20명을 설문조사한 우지원과 이영학(201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학과 재학생, 일반인 등 12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웹기록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최재혁, 김희섭(2009) 등의 연구가 있다. 기록생산자와 이용자 연구는 기록학 분야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까지의 연구성과가 가장 빈약한 연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전문가, 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또는 웹기록이나 콘텐츠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 이용자 등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인식도나 만족도 설문조사보다는 면담이나 혼합연구를 통한 이용요구나 이용행동을 탐색하는 연구(exploratory research)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설문조사-기록이용자

	저자(연도)	논문명	학술지(권/호)
1	최재혁, 김희섭 (2009)	역대 대통령 웹기록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분석	기록관리학회지 (9/1)
2	우지원, 이영학 (2011)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 연구	기록관리학회지 (11/1)
3	김솔(2013)	대통령 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초등교육 활용방안	기록관리학회지 (13/1)

설문연구의 다섯 가지 범주 중 마지막은 설문조사를 활용한 평가연구⁶⁾

6) 이 연구에서 실증연구를 식별할 때에도 연구자 스스로가 평가자 역할을 맡은 평가연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면담을 통한 평가연구는 후기실증주의 연구논문을 분석할 후속논문에서 다룰 것이다.

이다. 기록학 분야의 실증 평가연구는 다음의 <표 8>에 보이는 바와 같이 5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무엇을 평가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를 담보할 수 없다면 평가하는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문도구를 활용한 평가연구는 설문도구를 개발하고, 개발한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실제 평가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또 그런 만큼 개별연구마다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록서비스의 평가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만들고 정련하는 방향으로 연구성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표 8> 설문조사-평가

	저자(연도)	논문명	학술지(권/호)
1	이윤주(2007)	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평가 기준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16)
2	한수연, 정동열(2012)	기록물관리기관 서비스 품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학회지(12/1)
3	장희정(2012)	국가기록관 웹사이트의 평가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학회지(12/2)
4	방기영 외(2015)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모델 개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학회지(15/4)
5	정우철, 이해영(2016)	대학기록관 이용자의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기록관리학회지(16/1)

평가연구의 복잡한 단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연구는 한수연의 박사논문을 정리한 한수연, 정동열(2012)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1) 문헌연구를 통해 기록서비스의 정의와 구성개념을 도출하고, (2) 도서관 분야의 품질 측정문항 세트를 하나 선택하여 수정하여 측정문항을 개발하고, (3) 이를 2회에 걸친 전문가 이메일 조사를 통해 정련하고, (4) 두 가지 기준기를 모두 충족시키는 3개 유형별 각 1기

관, 즉 국가기록원(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외교통상부(기록관), 관세청(특수기록관)의 내외부이용자 50명씩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성개념 타당도 1차 검증을 수행하고, (5) 이용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대통령기록관, 육군, 문화재청의 내외부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2차 검증을 실시하고, (6)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 표본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6개 기관 모두에서 각각 25명씩 총 150명을 추가 조사하고, (7) 범용 서비스 품질 측정도구인 SERVQUAL과 도서관에 특화된 서비스 품질 측정도구인 LIBQUAL 플러스 척도와외의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개발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고, (8) 앞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된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 서비스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단순회귀분석으로 알아봄으로써 개발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고, (9)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개발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10) 만족집단과 불만족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실시함으로써 마침내 기록서비스 품질척도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한편 정우철과 이해영(2016)은 이보다는 간략한 방법을 채택하여, 한수연의 연구 등 선행 평가도구를 선별하여 설문지를 개발하고 4차에 걸친 검토를 통해 설문지를 압축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한 끝에 평가도구를 완성하였다. 13개 대학의 기록관 서비스 이용자 113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평가문항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이 두 연구가 기록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한 평가연구라면, 이윤주(2007)와 장희정(2012), 그리고 방기영 외(2015)의 연구는 기록관 웹사이트나 웹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평가한 연구이다. 이윤주는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2차에 걸친 수정과정을 거쳐 도구를 개발한 후, 기록학 대학원 수료생

7) (1) 참고서비스, 전시와 교육 등 부가서비스, 견학과 출판 등 확장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면서, (2) 2009년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기관을 말한다.

과 졸업생 5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하여금 국내외 5개 보존기록관을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장희정도 국가기록관 웹사이트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5개국 국가기록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수행하였다. 방기영 등은 디지털 평가 평가 모형인 DigiQual을 기록정보서비스에 맞추어 수정하여, 2년 이내 대통령기록관을 이용한 연구자, 일반이용자와 기록학 전공 대학원생 24명이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를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기록서비스의 평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학계와 현장에 평가연구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지 않다. 다양한 유형의 기록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 것도 아니고, 각 기관의 사명과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가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교한 방법론을 적용한 평가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국가기록원이 각급 기록관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록관리 기관평가에 대해서야말로 평가의 목적에 대한 사려 깊은 검토와 함께 신뢰도와 타당도를 담보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 연구의 경우, 몇 편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체로 사회과학의 설문연구 관행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학 분야 설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자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외한다면, 표집연구보다는 전수조사, 또는 유사 전수조사 연구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요원 모집단이 아직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표집하기보다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앙부처나 광역단체 등 기관 유형을 정한 후 그 범위 안에서 전수를 조사하는 것도 흔히 취하는 전략이다. 조사대상자 식별을 위해서 기록전문가협회나 대학기록관협의회 등 전문단체 회원명단을 활용한 연구도 있지만, 최근에는 국가기록원에 전문요원 배치현황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소속기관, 이름, 이메일 등 확실한 신

상정보를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율이 낮은 편⁸⁾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그래서인지 일일이 전화로 설문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수락한 사람에게만 설문한 후 응답률을 계산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몇 편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기록학 설문연구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한계는 연구문제와 설문내용, 조사결과, 그리고 조사내용에 기반한 제언 사이의 내적 타당성이 약하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조사결과를 기술적으로 보고하는데 그칠 뿐 그 결과가 의미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지 않고 넘어가는 논문들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을 제언으로 마무리한 것이 되었다. 석사논문을 정리한 논문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현상에 수반되는 복잡한 상황 요인을 통제해야 하는 설문조사 연구방법의 내재적 한계에 기인한 부분이 더 클 것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현상을 연구한 논문이 어느 정도 축적된다면, 메타분석을 통해 상황적 조건에 따른 결과의 차이와 차이가 드러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기록학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전략이다. 중앙부처 연구사를 대상으로 근무상황을 조사한 서혜란과 옥원호(2008)의 연구결과를 서울시 자치구청 연구사를 조사한 내용과 비교하여 조사결과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했던 정하영과 강순애(2013)의 방법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2) 실험

실험(experiment)은 그리스 과학철학에서부터 활용되어 온 탐구방법이다. 기록학 양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는 6편이 실험연구였다. 그 중 4편은 자연과학/기술적 실험연구였고, 2편이 사회과학적 실험연구였다.

8)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응답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소연(2015, 82-83)을 참고할 수 있다.

〈표 9〉 실험 연구

	저자(연도)	논문명	학술지(권/호)
1	한현진, 이수상 (2008)	자원기반학습을 위한 기록정보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학회지 (8/1)
2	윤대현, 신현창 (2012)	서고환경관리를 위한 보존성 평가지수 활용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31)
3	봉춘근 외 (2013)	소량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보존챔버 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학회지 (13/1)
4	김민지 외 (2015)	일본, 말레이시아, 오만의 기록물에서 분리한 유해미생물에 대한 친환경 기록물 소독장비 효과검증	기록관리학회지 (15/2)
5	신예진, 최재황 (2015)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교육적 효용성 분석	기록관리학회지 (15/3)
6	김기현 외 (2016)	Geranial, Cineol, Menthol과 편백의 유효성분을 조형물로 하는 손소독제 연구	기록관리학회지 (16/2)

자연과학에서 실험은 실험환경을 통제하여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을 단순화하고, 특정한 조치(treatment)를 취한 후 조치의 효과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연구방식을 말한다. 윤대현과 신현창(2012)은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른 종이의 보존성 평가지수를, 봉춘근 등(2013)은 양은 적지만 중요도는 높은 소량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보존챔버의 도입비용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와 함께 그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 김민지 등(2015)은 기록물 소독장비의 효과를, 김기현 등(2016)은 손소독제를 개발하여 기록관 서고에서 확인된 곰팡이 10종에 대한 소독효과를 실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모두 해당 조치가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 2편은 특정 제품이나 기술의 효과를 확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연구의 품질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기록학의 요구에 맞는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과학에서와 유사하게 사회과학에서의 실험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을 통제하여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조치의 효과를 검증한다(Creswell 2009, 145-146). 조치를 취한 실

협집단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기도 한다. 한현진과 이수상(2008)은 교사 2인을 면담하여 자원기반 학습 모형을 수립하고, 이 모형에 따라 교사가 개발한 교수학습안을 조치로 삼아 초등학교 6학년 2개 학급(32명, 3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한 학급은 기록-자원기반학습을 실시한 실험집단이었고, 다른 학급은 일반 학습을 실시한 통제집단이었으며, 두 학급의 사전-사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자원기반 학습모형의 교육효과를 검증하였다. 신예진과 최재황(2015)은 교육용 기록 콘텐츠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등학생 131명을 대상으로 콘텐츠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두 연구 모두 기록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였다.

현재까지의 기록학 실험연구는 특정 제품이나 기술의 효과를 검증한 자연과학 실험연구와 주로 기록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 사회과학 실험연구로 양분할 수 있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과 정보과학을 아우르는 복합학문으로서의 기록학의 특성을 보이는 결과라고 하겠다.

5. 결론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록학 양대 학술지에 지난 10년간 게재된 논문들을 검토하면서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상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우선 실증연구 방법론을 채택한 설문조사연구와 실험연구의 동향을 검토해 보았다. 면담이나 혼합방법 연구 등 후기실증연구는 후속논문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이 연구의 시사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제언도 후속 논문에서 다룰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기록학 교육과정에 연구방법 관련 과목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석사나 박사학위를 청구하기 위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연구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현장에서 연구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도 연구역량을 배양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록학과 기록공동체가 공유하는 전문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도 실무자가 현장의 경험을 논문으로 외화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의 경험은 본질적으로 귀납적 사실이며, 이를 특정 현장 외부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원칙으로 정련하기 위해서는 실증연구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계만 생각하더라도 다양한 연구자가 유입되어 형성된 기록학계에서 소통의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을 배경으로 성장한 한 사회과학자⁹⁾가, ‘연구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작성한 논문’이라는 의미의 실증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물일 뿐이다. 이 연구는 후기실증연구 동향을 분석한 후속논문과 함께 참조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의 배경에 기인한 한계를 안고 있는 논문이지만 학계와 현장의 탐구와 경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첫 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진 외. 2013.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99-229.
- 김기현, 최석찬, 유연강, 이수진, 박운규, 황석연. 2016. Geranial, Cineol, Menthol과 편백의 유효성분을 조성물로 하는 손소독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173-183.
- 김 술. 2013. 대통령 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초등교육 활용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59-79.
- 김민지, 이연숙, 최영남, 최영신. 2015. 일본, 말레이시아, 오만의 기록물에서 분리한 유해미생물에 대한 친환경 기록물 소독장비 효과검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165-179.

9) 현재 문헌정보학계에는 사회과학자와 정보공학자 정체성을 가진 연구자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에는 스스로를 인문학자로 간주하는 학자가 가장 많았으며, 아마도 미국에서는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로 사회과학 경향이 강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정보학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후로 스스로가 정보공학자라고 믿는 연구자의 수도 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김지연, 김건, 김용. 2013. 대학발전 기부기록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87-113.
- 박민수, 서은경. 2012.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189-207.
- 박소리, 이성민, 김용, 김종현. 2016.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4): 31-53.
- 박용기, 정연경. 2016. 공기업 기록경영 도입을 위한 구성 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1-28.
- 박희진. 2014. Archivarica 리뷰를 통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99-125.
- 방기영, 이능금, 이우진, 한아람, 김용. 2015.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모델 개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25-48.
- 봉춘근, 박성진, 이정주, 신현창. 2013. 소량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보존챔버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35-58.
- 서혜란, 옥원호. 2008. 기록연구사의 근무실태 및 제도운영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35-255.
- 설문원. 2012.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3-232.
- 신예진, 최재향. 2015.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교육적 효용성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193-217.
- 우지원, 이영하. 2011.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67-92.
- 유현경, 김수정. 201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7: 95-130.
- 윤대현, 신현창. 2012. 서고환경관리를 위한 보존성 평가지수 활용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1: 139-161.
- 이귀영, 김지현. 2015. 중앙행정기관의 소셜미디어 아카이브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141-167.
- 이성태. 2009. AHP방법에 의한 기록연구사의 직무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133-158.
- 이소연. 2011.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7-31.
- 이운주. 2007. 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평가기준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6: 147-200.
- 이은미, 감병, 임진희. 2013.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 관련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요소들에 대한 의무기록 관리자의 중요도 평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51-171.

- 이은영. 2012. 기록관리전문직의 핵심역량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117-139.
- 이을지, 이호신. 2016.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156.
- 장현중. 2008. 국립박물관의 기록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153-179.
- 장혜리, 최재황. 2008. 레코드매니저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123-142.
- 장희정. 2012. 국가기록관 웹사이트의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51-70.
- 전슬비, 강순애. 2016.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61-88.
- 정우철, 이해영. 2016. 대학기록관 이용자의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195-221.
- 정하영, 강순애. 2013. 서울특별시 자치구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특성 및 직무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57-85.
- 조용훈, 서은경. 2016. 대학 학과기록의 디지털 리포지터리 플랫폼 구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209-233.
- 최윤정, 남태우. 2012. 학교기록물의 보존기간 적합성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17-142.
- 최재혁, 김희섭. 2009. 역대 대통령 웹기록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77-95.
- 최정민, 김유승. 2013. 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73-197.
- 표순희. 2009.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내용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351-370.
- 표순희. 2010. 실무자의 근거출판 활성화를 통한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국내 적용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219-239.
- 한수연, 정동렬. 2012. 기록물관리기관 서비스 품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59-78.
- 한현진, 이수상. 2008. 자원기반학습을 위한 기록정보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143-165.
- 허준석, 홍덕용. 2016. 원문정보공개서비스를 위한 전자기록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0: 351-388.
- 홍덕용. 2012.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 중요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79-126.

- Creswell, John W. 2009.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3rd Ed. LA: Sage.
- Creswell, John W. 2009.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3rd Ed. LA: Sage. (김영숙 외 역. 2011. 『연구방법: 질적, 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 3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 Guba, Egon G. & Lincoln, Yvonna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Norman K. Denzin & Yvonna S. Lincoln, ed. Thousand Oaks, Calif. : Sage.
- Lincoln, Yvonna S., Lynham, Susan A., & Guba, Egon G. (2011). Paradigmatic controversies, contradictions, and emerging confluences, revisited. In :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Norman K. Denzin & Yvonna S. Lincoln, ed. 4th Ed. Thousand Oaks, Calif. : Sage. (손승현 역. 2014. 패러다임 논쟁, 반박, 그리고 현안의 합류점 재검토. 『질적연구 핸드북』. 4판.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